

조신에서 깨달음의 실천지향과 변증법적 삼단구조

Moral Practice of Awakening in 'Chasin' and Generation of Dialectic of Three Stages

저자 (Authors)	김용철 Kim Yong-Cheol
출처 (Source)	한국학연구 7 , 1995.12, 455-493(39 page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7 , 1995.12, 455-493(39 pages)
발행처 (Publisher)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357600
APA Style	김용철 (1995). 조신에서 깨달음의 실천지향과 변증법적 삼단구조. 한국학연구, 7, 455-49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2 11:3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조신>에서 깨달음의 실천지향과 변증법적 삼단구조

김 용 철*

1. 문제 제기

문학에서 형식은 단순히 내용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 빚어지면서도 내용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길이며 그 과정에서 내용의 모습과 질을 규정하는 틀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형식이 각 시대의 사회구조를 그 자신의 모습으로 체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학 형식이 또한 작품 내용을 이루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학 형식은 사회의 변혁기를 겪으면서 동시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 형식을 창출하곤 한다. 이때의 혁명적 형식은 사회변혁의 구조를 구체적인 논리적 구조로 정형화시켜 표현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문학 형식의 의미를 넘어 사회 전체가 변화해 나간 길의 정형적, 논리적 제시이기도 하다.

* 본연구소 연구원

이러한 혁명적 형식을 창출한 문학 작품으로 <조신>이 있다. 주인공의 인식이 몽유과정을 통해 결정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구조는 한국 서사문학의 발전에서 <조신>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신>¹⁾은 초기 소설사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이며 기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설화와 소설의 장르적 구분, 전기소설 장르의 모색이라는 초기소설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항상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작품의 여러 특징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명혼소설인 <최치원>에 연구가 집중되었고 또한 불교적 색채에 대한 비판적 인식 때문에 소설사 초기의 불완전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한편 기존의 연구는 <조신>의 주요 갈등이 신분 갈등이 애정의 성취와 좌절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품의 의미가 애정으로만 단순화되어 신분갈등을 나타내는 애정과 그것을 가로막는 현실의 질곡인 유민문제의 상관관계가 소홀히 취급되

1) <조신>에 대한 명칭은 <조신설화>, <조신몽>, <조신몽생>, <조신전>, <조신>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들 명칭들은 단순한 명명을 넘어 이 작품이 지닌 특질을 설화나 전, 소설이라는 특정 장르에 귀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작품의 명칭을 <조신>이라 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일단 이 작품이 실려있는 『삼국유사』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서사체의 명칭에 주인공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최치원>, <장춘랑, 파랑> 등의 경우를 보아도 <조신>이 생성된 나말여초 당시에 일반적인 예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조신>을 당시에 설화 단계에서 더 높은 서사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사 형태 중 하나로 보고자 한다. 물론 그것이 승전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설화인가 아니면 설화 단계를 벗어난 소설인가를 규정짓는 것은 필자의 능력에 부치는 일이므로 이 글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었다.

또한 작품의 구조를 몽유구조로 처리했으며 그나마 최근에는 환몽소설과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까지 이 작품을 분석한 주요 틀이었던 몽유구조라는 액자구조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액자라는 말이 의미하듯 형식적이고 정태적인 모습만 강조되었을 뿐 입몽에서 각몽으로 다시 결말로 이어지는 작품의 유기적 계기적 운동의 구조가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관련해 작품의 결말이 불교적 깨달음과 염세주의로 흘러서 몽중체험 중 신분과 유민 문제의 현실성을 저해한 미성숙한 작품이라는 해석이 주로 행해졌다. 이 작품에서 결말은 이 작품이 지향하는 깨달음의 성취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의 해석에 따라 이러한 작품 구조와 내용이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았다. 불교가 단순히 출세간 지향의 수도 종교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진 현실대응의 성격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이 작품에서 깨달음의 순간 현실을 어떻게 끌어안는가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이 작품의 기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음신앙과 불교적 깨달음 등 불교가 가지는 의미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사학계에서는 이 작품과 관련하여 명주지역의 지방세력, 화엄종, 관음신앙, 세달사와의 관련이 지적되었다.²⁾ 한편 사상사 쪽에서는 관음신앙의 차원에서 <조신>이 가지는 위치를 확정하고 <조신>에서 관음신앙이 현실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관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열어주는 관음이라는 중요한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³⁾

이러한 기존 논의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는 <조신>의 내용을 하나하

2) 김갑동, 「나말려초 지방세력의 동향」-명주세력, 『나말려초의 호족과 사회변동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0.

3) 정병삼, 「통일신라 관음신앙」, 『한국사론』 8, 서울대 국사학과, 1982.

나 살펴가면서 <조신>의 내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특성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만의 몽유구조를 형성해 나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것을 산출한 창작 배경과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까지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 어떤 불교적 기반에 서 있는가 하는 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몽중 세계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작품 구조의 특성이 한국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그것은 사물의 발전과 상승이라는 일반적 논리법칙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발전과 상승의 구조를 가지는 몽유구조나 명혼구조 등을 합쳐 ‘변증법적 삼단구조’라 이름짓고 그 특성을 규명해 보는 작업도 포함한다.⁴⁾ 이렇게 이 작품이 근거하고 있는 불교의 특성을 작품 당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파악해내고 다시 이것을 일반적인 법칙으로 아우르려는 작업은 실제로 불교가 한국 중세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던 사상체계였다는 점에 비해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불교가 한국문학사, 특히 초기소설사의 중요한 근간이었음을 강조하는 성질도 갖고 있다.

2. <조신>에서 애정과 유민, 깨달음과 실천의 상관관계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여기에서는 우선 <조신> 전체를 꿈

4) 이점에 있어서 신재홍은 비록 의사 몽유구조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최치원>과 <조신> 등을 한꺼번에 몽유구조 속에 다룸으로써 이들이 실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조형된 작품들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이 글은 그의 문제의식을 좀더 일반화시켜 해결하려는 한 시도이다.

꼼꼼하게 따져 보면서 이 작품의 전체 의미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처럼 이것을 몽유 모티프를 가진 액자구조라고 하여 전체작품에서 몽유세계만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고 입몽에서 각몽으로 이어지는 세계의 각기 다른 세계를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려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특히 넘어가는 이행의 과정과 각 단계에 해당하는 세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명주 지역에 있는 세달사의 장사 조신이 태수 김혼의 딸⁵⁾에게 반하여 낙산대비에게 소원을 빈다. 전기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듯이 신분 갈등을 표현하는 애정갈등으로 작품의 처음 단계가 구성된다. 이러한 갈등은 물론 진골귀족과의 신분 격차 때문에 발생한다. 한편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의 신분으로 애육에 빠지는 허약한 인간의 등장이다. 또한 부처도 송엄한 철학적 부처가 아니라 말못할 고민까지도 함께 하는 친근한 존재로서의 관음보살이다. 이것은 이 작품의 불교가 대중신앙으로서의 관음이라는 대중성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⁶⁾ 이러한 첫 단계에서 우리는 재자가인 대신 등장하는 허약한 인간이라든지 소원을 들어주는 대중적 부처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다른 종류의 불교 서사체와 상당히 다른 사상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여자가 결국 시집을 가버리자 낙산대비에게 가서 애원하다가 지쳐서 잠이 든다. 둘째 세계로의 이행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조신은 애

5) 이 여자의 아버지로 나오는 김혼은 『삼국사기』에서 민애왕 때 청해진군에게 패했으며 백백산에 은거해 있으면서 산중재상이란 말을 들으면서 성주산문 계열의 무염대사를 후원한 인물이다. 일종의 설화화되기 쉬운 인물이며 이 작품의 김혼과 동일인이라면 이점은 바로 이 작품이 가진 사상적 기초가 선종 계열도 포함할 수 있는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다.

6) 실제로 인도에서 대승불교 성립 자체가 탐상신앙이 가지는 대중적 기초에서 기원했다.

정을 생취하는 적극적인 인간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데서 호소하는 나약한 인간이 나온다. 이른바 욕망을 품었으나 신분(골품과 종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의 벽이 높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가 여자가 시집감으로 해서 파탄이 된다. 이후 슬픔 때문에 심신이 곤비할 정도가 되어서 잠이 듦으로서 현실의 욕망의 좌절로 인해 자신을 지탱하기도 힘든 지경이 된다. 입몽 전의 세계를 지탱할 힘이 완전히 소진하게 되자 다음 세계로의 이행이 시작된다. 이점은 <조신>과 동일한 계열의 구조를 갖춘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조신>만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꿈속에서 여자가 찾아와서 함께 고향으로 간다.⁷⁾ 여느 전기에서와 같이 여주인공의 적극적 성격이 주목된다. 찬연히 웃는다는 데서 발랄하고 아름다운 주체적 여성의 모습이 연상된다. 현실이 아니고 꿈속이기 때문에 더욱 이 여성에 대한 이상화의 정도가 심하다.⁸⁾ 여자가 찾아옴으로 해서 일단 욕망은 성취된다. 그러나 욕망의 성취 과정에서 어떤 고난도 개재되지 않은 채 곧바로 성취되는 것은 두 남녀의 애정의 성취가 근본적인 작품의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이서 고향에 가서 살다가 몰락하여 유민의 신세가 되어 걸식하고 다닌다. 둘째 세계로의 이행 이후 몽중 세계는 유민의 세계로 나타난다. 이후 큰 아이는 굶어죽고 둘째 딸아이가 걸식하러 다니다가 개에

7) 이점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유추를 할 수 있다. 꿈이라는 인간정신 활동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허구세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쯤 의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조신>에서 이러한 반의식적인 상태는 입몽 단계에서 여인이 찬연히 웃으며 찾아오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마치 몽중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기존의 연구자 모두가 지적하고 있다.

8) 실제로 이 여자가 나말여초 시대에 관음이라는 최고의 이상적 여성상에 해당되므로 이 시대인이 가졌던 여성상의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게 물려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 부부는 늙어서 움직일 힘조차 없이 누워 있다. 이때 부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간고한 유민의 생활의 구체적 형상이다.

유민으로의 몰락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신재홍은 이 작품이 현실적 내용을 띠고 있지만 작가의 관념적 시각에 의해 서술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⁹⁾ 그러나 몰락하는 개인은 사회의 객관적 발전 과정에서 자신의 성실성 등과는 상관없이 몰락하게 되므로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유망은 천재지변에 의한 유망과는 다르다. 한편 두 부부는 사십년을 살았다고 이제까지 해석되어 왔으나 큰 아이가 열다섯 살이고 이때의 평균 수명이 삼십 대임을 생각할 때 사십 평생이라고 해야 정확한 해석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유민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몰락과 유민의 고통은 이 몽중세계의 전부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 작품의 주제가 바로 이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둘째 딸과 부부의 형상에서 이들이 현실에서 더 이상 어떻게 살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때 부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부분은 작품에서 가장 정채있게 그려져 있으며 작품의 주제가 핵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부인의 이야기의 요지는 부부간의 애정이 지극하나 가난 때문에 그것을 즐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이 작품에서 애정의 문제가 처춘남녀간의 결합이 아니라 부부간의 그것으로, 다시 가족과 생활이라는 것과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신분 문제와 결부된 남녀의 결합 문제가 쉽게 해결된 것은 문제의 층위가 부부간의 것으로 옮겨 가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 작품의 중심 주제는 부부간의 애정과 이에

9)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58면.

수반되는 가족 생활을 파괴하는 가난과 유민의 문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부인은 지난날의 환락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번뇌로 오르는 계단이었다고 하고 있다. 이말은 불교적 염세관의 표현이긴 하나 정확히 무엇을 번뇌라고 생각하는가가 문제이다. 지난날의 환락은 부부간의 애정과 남녀의 결합을 지칭하며 이것이 불교적 번뇌를 이룬다. 부부간의 애정을 파괴하는 유민의 가난은 염세에 들어가지 않으며 작중 현실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일연은 작품의 후기에서 이러한 번뇌와 염세의 내용을 작품 전체 내용으로 파악했으며¹⁰⁾ 기존 연구자들도 이것을 이어받아 이 작품이 입몽 전과 입몽에서 겪은 모든 것을 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작품의 주제인 유민의 문제와 일연이 이 작품을 보고 거기에 부친 자신의 문제의식인 염세의 문제가 혼동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일연의 해석은 이 작품에 대한 역사적 해석의 하나로써 분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간점점을 해보면 이 작품에서 평범하고 허약한 한 인간이 일단 성취한 애정이 파괴되는 모든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민의 가난이 문제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신분 갈등에서 유민의 문제로 문제의 무게중심이 달라진 시대의 산물이거나 반영이라고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다.

헤어지자는 부인의 말을 듣고 <조신>은 기뻐하여 아이들을 갈라 말고 서로 반대편 길로 돌아서는데 꿈을 깬다. 조선후기에 지어진 권헌의 작품 <관북민>¹¹⁾에도 가난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는 유민의 이야기

10) ‘議曰: 讀此傳, 掩卷而追繹之, 何必信師之夢爲然. 今皆知其人世之爲樂, 欣欣然, 役役然, 特未覺爾.’

11) 임형택 편역, 『이조시대 서사시』 상, 창작과비평사, 1992.

가 나온다. 거기에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밥을 해먹는 장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절망상태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새삼스레 생각나오 이별하던 그날 아침/ 얼굴을 치켜들고 긴 한숨만 내쉬더니// 아내는 겨라도 끓여 마지막 한술 나누려고/ 눈물을 닦으며 부엌으로 나갑디다// 때마침 북풍이 차갑게 몰아치고/ 새벽별 충충하여 차운길 비추는데// (更憶別離日 仰面增長吁 取釐備晨餐 惻惻向中廚 是時北風寒 星月滿寒衢)’ 이 인용에서 북풍이나 새벽별, 차운길은 모두가 생활 때문에 자식을 팔아먹고 부부간에 이별까지 해야 하는 이들 부부의 지극하고 참담한 고통스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부부가 만나 서로 함께 한 세상을 어떤 품성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고 키워 왔던 소중한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끝장나는 순간의 모습인 것이다.

<조신>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조신>은 크게 기뻐한다(大喜). 둘째 단계가 끝나려고 하면서 허약한 인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난다. 부인도 자신은 고향으로 갈테니 반대편으로 가라고 한다. 왜 이렇게 비정한 이별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은 결국 가난이 애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부부간의 관계에 기초한 인간성 자체까지도 파괴되는 모습이 아닐까 추측된다. 가난으로 생활은 간고해도 애정은 남아 있었으나 애정이 받치고 있던 인간성이 파괴됨으로써 이 몽중 세계는 더 이상 지탱할 힘을 잃고 다음 단계로 이행된다.

꿈에서 깨어나 <조신>은 관음의 그 성스러운 모습을 우러르며 부끄러이 참회를 한다. 이때 그는 깨달음의 표징으로 흰머리를 가지게 된다. 몽중의 여인은 결국 관음의 화신이였다. <<법화경>> <보현행원품>에는 관음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화신하여 번뇌에 빠진 인간을 도운

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여인이 관음의 화신이라면 몽중의 세계 모습은 꿈이 우연히 오듯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관음에 의해서 현실 중 어떤 부분이 신중히 선택된 허구의 세계이다. 이 경우 관음의 이 선택은 작자(혹은 작자층)의 시각과 동일할 것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말했던 신분 갈등이 유민의 문제로 전이되는 작품의 주제 이동은 바로 작자층이 선택하고 제기한 문제의식이다. 작자층이 당대에서 찾을 수 있었던 가장 끔찍한 인간 고행의 군상은 바로 유민이었으며 이 유민 문제의 해결이 그들이 현실에서 해결해야만 했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작품의 셋째 단계는 해현령에서 죽은 아들인 돌미륵을 근처 절에 모시고 나중에 정토사를 지어 선행을 쌓다가 간 곳을 모른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몽의 단계는 한층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이 일어나는 곳이다. <조신>에서 이러한 도약은 자신이 꿈속에서 겪은 일들이 관음의 화신이었음을 알고 참회하는 데서 오며 그 참회의 방향은 돌미륵과 정토사이다. 이 중에서 이제까지 돌미륵에만 주목해 왔으나 한층 더 중요한 것은 정토사이다. 왜냐하면 정토사야말로 각몽이후 조신의 삶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륵정토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천의 방법으로 정토사를 세워 선업을 행하는 것이 <조신>의 결말인 것이다. 이 선업의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유민이나 혹은 유민을 만들어 내는 당시의 사회나, 아니면 유민과 관련된 어떤 일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인간 세계에서의 애정의 문제를 초탈한 과정이며 더 높은 단계인 대중(물론 이것은 불교용어로서의 대중이며 미륵이나 정토사로 대표된다)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조신이 행한 선행과 같은 모습으로 <죽지

량> 조에 나오는 죽지랑의 전신인 한 거사의 형상이 주목된다. 사람들을 위해서 말없이 고개길을 닦는 선행을 하고 있는 거사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게 공동체 대중을 위해 헌신하는 불교인의 현실 실천의 한 모습이며 바로 깨달음 후의, 간 곳을 모른 후의 조신의 모습과 겹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바로 자신의 아들인 미륵불에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점에서 앞에서 제기했던 이 작품의 대중성이 가지는 의미가 드러난다. 기존에는 배타적인 고고한 기풍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는 <최치원>과 이 작품을 곧바로 비교했기 때문에 작품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작품은 바로 이러한 불교적 대중성에 기초하여 허약하고 평범한 인간이 꿈속에서 유민의 생활 때문에 파탄을 맞은 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각몽이라는 상승의 단계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3. 나말여초 불교계의 동향과 <조신>의 형성 배경

위에서 우리는 <조신>의 주제 문제에서 출발하여 <조신>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나타난 여러 문제의식들과 <조신>의 깨달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에 바탕하여 여기에서는 <조신>의 이러한 내용과 구조가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구된 것이 없으며 작품 이외에는 전해지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의 논의는 추론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일단 작품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과 작품이 실려있는 『삼국유사』의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관음(觀音) 정취(正趣) 조신(調信)> 조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이 주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조동일은 일찌기 이 작품을 전설로 보면서 그 이유로 해현령의 돌미륵이 ‘경이로운 작품외적 세계가 증거물로 작품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¹²⁾ 여기에서는 이 증거물이 작품내적인지 작품외적인지, 또는 이미 서사 세계에 의해 포섭된 증거물이 작품외부에 실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작품외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기로 한다. 대신에 이 증거물이 가지는 또다른 중요한 면을 지적하기로 한다. 그것은 <낙산시대성 관음 정취 조신> 조에 등장하는 절들인 해현령의 돌미륵을 안치한 절과 낙산사, 세달사, 범일이 정취보살을 안치한 절이 거의 동일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절들은 이렇게 동일 조목에 묶일 수 있는 서사작품들을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러한 공통된 특질이 단순히 작품외적 증거를 넘어서서 작품의 창작, 향유, 전승의 장으로써 기능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때 작품은 절에 관련된 구비설화가 흔히 그렇듯이 영험이라는 형태로 이 절들의 사회적 처지의 상승에 기여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로써 기능하지는 않는가 라는 일반적인 질문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재미있는 시사를 던져주고 있는 사람은 고은¹³⁾이다. 그는 낙산사를 소개하는 글에서 <조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상이 낙산사를 지은 훨씬 뒤에 낙산사는 한 본산(本山) 장사(莊舍)의 말사가 되었다. 그 말사에 지장(知莊)으로 조신스님을 보낸 것이다.’라고

12) 조동일, 『소설의 성립과 초기소설의 유형적 특질』,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33-234면.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김종철은 이것이 작품내적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작품 외적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작품을 소설로 보고 있다(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 -전기소설과 관련하여』, 『다국어이수봉선생회갑기념논총』, 1988. 192면.)

13) 고은, 『낙산사』, 『절을 찾아서』, 책세상, 1987. 35면.

쓰고 있다. 고은이 왜 조신이 파견된 장사를 곧바로 낙산사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고은의 말대로라면 낙산사는 화엄 거찰인 세달사의 말사였으며 이렇게 본다면 해현령의 돌미륵을 안치한 절도 또한 세달사의 말사가 된다. 따라서 <조신>은 가장 큰 절인 세달사 계열의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일단 해석할 수 있다. 절은 사회적 구성단위의 하나로서 특유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역할은 물론 각 절의 사상적, 이론적 정신 세계의 높이에서뿐만 아니라 절에 모신 부처의 이른바 ‘영험’이라는 대중적 종교 기능에서도 온다. 따라서 세달사 계열의 어떤 특징을 가지는 <조신>은 세달사의 사상적 자장 안에서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낙산대비의 영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달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 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낙산사에 대해서이다. 이점은 작품의 문면에 낙산대비의 영험이라는 대중적 기능만이 아니라 <조신>이라는 작품이 이들 절의 군집에 대해서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대해서 또한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 가지는 기능보다 더 폭넓은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조신>의 형성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나말여초 명주 지역 세달사 계열의 불교 민중 지식인들의 활동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중에는 세규사라고 되어 있으나 국사학 쪽에서는 세달사라고 추정하고 있다. 세달사의 이칭인 홍교사가 두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조신>에 나오는 세달사는 경기도에 있는 홍교사가 아니라 강원도 영월지역에 있는 홍교사라는 것이다. 세달사는 명주(강릉) 지역 화엄종 계열의 가장 큰 절이었다. 화엄 종손이라는 의상의 제자 신림이 주석했고 궁예가 사미 노릇을 했다. 따라서 낙산사와 본사말사 구조를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종통에 기초한 절들의 하이어나키인

본사·말사 구조가 설사 당시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지방사회가 독립성이 강했으며 개인에게도 출신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으며 절이 지방의 향촌조직과 문화의 거의 유일한 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명주 지역 세달사 계열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어떤 사상적 계열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신>은 낙산사의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작중 세계를 펼쳤으며 해현령 돌미륵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세달사의 장에 포섭되는 절들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덧붙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작품의 배경이자 낙산사가 있는 명주 지역의 특수성이다. 명주지역은 비옥한 토지와 함께 고립된 지역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강원도 지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불교와 화랑도에서 다같이 성스러운 산으로 취급한 금강산과 설악산, 오대산에 인접하고 있어서 절들이 몰려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에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가 싹텄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지역적 고립성으로 인해 쉽게 독립세력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김주원이나 궁예 등이 그 대표인물이다. 이 명주지역의 서사체로 허균이 지은 <별연사고적기>에 나오는 <연화부인>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두 남녀는 바로 김주원의 부모이며 김주원은 신라말기 명주지역에 웅거하면서 반란을 꾀했다가 실패한 인물이다. 이 또한 명주라는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화화되기 쉬운 인물이며 동시에 명주지역의 풍부한 소설적 전통을 보여준다.

한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조신>과 동일한 조목에 실려 있는 범일에 관한 설화이다. 범일은 선종 구산 중 사굴산문의 개창조이며 화엄종 계열의 세달사와는 그 사상적 계보를 달리한다. 한데 『삼국유사』 원문에는 낙산사 관음상에 대한 의상과 원효의 설화에 뒤이어서 범일에 대한 것을 실고는 ‘고본에는 의상·원효 두 법사의 사적 앞

에다 범일을 적어놓았다'고 하면서 이들 인물들의 역사적 순차에 따라 순서를 바꾼다고 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는 우선 <낙산시대성...>조에 실린 설화들이 일연의 창작이나 채록이 아니라 고본이라는 앞선 서물에서 베낀 것임을 보여준다. 고본에는 아마도 <조신>은 없고 범일과 의상, 원효에 대한 것만 있었으며 구슬들을 지켜낸 사적과 <조신>은 각각 다른 서물에서 베낀 것으로 보인다.¹⁴⁾ 이렇게 볼 때 범일을 원효와 의상 앞이다 든 고본의 체제는 우선 명주 지역에서 범일로 상징되는 선종의 우위가 확보된 시대에 이 서물이 만들어졌다는 점, 명주 지역 호족 출신인 범일의 존재가 원효나 의상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명주라는 지역적 특성이 우선시되는 특질을 가진다는 점 등을 보여준다.¹⁵⁾

이렇게 이 작품의 배경에는 세달사와 명주 지역의 동향, 화엄종, 선종, 관음신앙, 미륵신앙이라는 불교 종파들의 현실적인 움직임이 각기 뒤엉킨 상태의 사상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혼재는 나말여초라는 격변기에 명주지역이라는 고립된 지역적 특성과 합쳐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이 중 어떤 계열이 <조신>을 탄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짧은 서사체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상적 경향을 총괄해서 이 작품을 어떤 사상 계열로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가설적 추론은 가능하다. 우선 이 작품의 사상 주조는 화엄종 계열인 것으로 보인다. 화엄을 개창한 의상 자신이 철저한 조직을 통

14) 신재홍, 앞의책.에서는 <조신>이 일연이 원작을 요약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고본의 존재와 일연이 어떤 문헌에서 설화를 전제할 때의 태도로 보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15) 명주와 관련된 범일과 궁예, 명주지역의 지방 호족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김갑동, 『명주세력』,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를 주로 참고했고, 세달사와 화엄종의 관계는 김상현, 『신라화엄사상연구』, 민족사, 1991.를 주로 참고했다.

한 실천주의자였으며 관음신앙이나 정토신앙을 통해 이를 현실화하려 했다는 점¹⁶⁾, 이 작품에서의 관음의 성격이 <<법화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소원을 들어주는 관음이 아니라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선지식 중의 하나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주요대상이 화엄고찰인 세달사, 낙산사라는 점 등이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시 나말여초 새로운 논리로 불교계를 재편시키면서 대중성을 획득했던 선종의 논리가 깊이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주지역의 화엄종은 선종에 깊이 침윤되었으며 <낙산이 대상...>조에 범일에 대한 설화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점의 한 증거이다. 어쩌면 교선일체를 적극 추진했던 사상 계열인지도 모른다. 또한 작중의 정토사나 돌미륵에서 보듯이 혼란한 시대 유민의 문제를 정토신앙으로 풀어보려는 미륵정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경사가 보인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점을 살펴보면 이 작품은 신라 중대 이래 현화적으로 흘렀던 명주 지역의 화엄종이 선종의 공격에 부딪치면서 그 영향을 받은 한편 자신의 전통에서 대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대중으로 향해 나아가려는 사상적 경향이 관음신앙과 미륵신앙을 매개로 하여 나타난 것으로 일단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상적 조류가 하도 복잡하게 흘러서 좀더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의 유민의 문제와 관련된 민중 지식인의 문제이다. 유교나 불교와 같은 고등 사상은 그 생성 당시부터 사회적 문제의 해결 과정을 자신의 내부에 가진다. 그것은 이러한 사상의 생성 자체가 그 당시 변혁기 사회에 대한 비판적 정신의 산

16)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지음, 「원효와 의상은 어떤 인물인가」, 『문답으로 읽은 한국고대사 산책』, 역사비평사, 1994.

물이며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치열한 정신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 후 이러한 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사상적 측면은 좀 더 정교하게 이론화되며 이들 사상들이 현실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계속 전진적 의미를 갖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 유교의 애민 사상이나 신분제에 정면으로 부딪힌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는 불교의 혁명적 선언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조신>에 나타난 불교 지식인들의 사상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가지는 비판적 성격을 계승하고 있다. 한데 이러한 비판적 지식인들은 역사의 어떤 시기에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민중의 노력이 심화되면서 필연적으로 일부류가 민중 지식인으로 전화된다. 물론 이러한 민중 지식인이 반드시 지배계급 출신은 아니다. 나말여초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바로 유민 문제의 해결이었다. 그것은 성장한 지방 호족이 자신들의 새로운 역사적 단계를 열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동시에 유민들의 존재 자체가 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 나갈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가혹한 삶의 조건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 제공자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유민의 세력화와 농민전쟁의 진행은 필연적으로 이들에게 동조하는 민중 지식인들을 만들어낸다. 세달사 출신의 궁예는 그 대표적 인물로써 그는 유민들의 변혁의지를 마뜩신앙으로 모아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이루려고 하였다. <조신>에서 신분갈등에서 유민의 문제로 문제의식이 전이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민중 지식인들의 활동이 이 작품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바로 <조신>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¹⁷⁾ 따라서 나말 여초의 격동기를 지내면서

17) <조신>의 첫머리에 ‘옛날에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昔新羅京師時)’라고 나오는데 이 기록에서 우선 창작시기가 신라라는 말을 쓰는 고려시기라는 점, 신라가 서울이었던 기억이 남아있는 시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러저러한 사상적 경향과 사회적 혼란상을 일정 정도 수습한 단계의 것이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신분갈등의 문제이다. 신분제는 역사상 생산력의 발달과 민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의 성장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정도가 완화되면서 소멸해 갔다. 나말여초에 신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족 시절 생성된 골품제를 폐지하고 귀족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분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나말여초의 신분 문제는 단순히 육두품의 신분상승 의지나 골품제의 폐지만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변혁기에 접어들면 사회의 모든 모순점이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해결을 지향하며 비등하게 된다. 따라서 나말여초 신분제가 하나의 중요한 전절점을 이루는 것은 이시기 변혁기를 맞아 전 사회계층이 참가한 신분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이 있었으며 이러한 저항의 힘을 이용하여 신분제 중 특별히 골품제만이 폐지되면서 귀족 사회로 나아가는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 민중이 참가한 농민전쟁의 힘이 결국 새로운 지배계급의 제어 범위 내부로 흘러들어가 재조직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사는 한없이 냉정하게도 자신의 시대에 이를 수 있는 것만 이루어내며 지배계급은 양보할 것만 양보하는 것이다. 어쨌든 신분제는 이 시기에 와서 가장 강고하고도 중요한 고리 중 하나를 끊고 신분적 평등을 향한 도정에서 한 걸음 발전을 이룩했던 것이다. 여기에 나말여초 신분모순의 거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최치원>이나 <수삼석남>에서 이러한 신분문제가 제기된 것은 단순한 육두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전사회적 노력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조신>에서 이점이 소홀히 된 것은 더 크고 더 사회 하부적인 유민의 문제를 중심으로 삼는 작자층의 문제의식 이동이 있었

신>의 창작시기는 고려초기로 보인다.

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신>은 나말여초 농민전쟁의 한 증양에서 문제의식이 탄생하여 고려 건국 후 정리된 작품이다. 관음신앙이 소원성취인 기복신앙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타난 것은 소원 성취와 같은 것이 현실의 모순을 종교적 신비체험으로 대체함에 비해 <조신>의 시대는 이러한 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할 시대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에서 <조신>이 가지고 있는 불교적 대중성이 가능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가지를 지적해야 한다. 곧 <조신>의 구조에서 결말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원인에 대한 것이다. 나말여초는 역사적 과정에서 하나의 전절점으로 구사회에서 새로운 하나의 사회가 탄생하는 격변기이다. 따라서 <조신>의 서사구조에서 상승의 단계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의 반영이다. 변혁기 사회가 혁명적 형식을 창출한 것이다.

4. 변증법적 삼단구조의 역사적 출현과 <조신>

<조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구조를 일단 '변증법적 삼단구조'라고 이름짓기로 한다. 여기에서 변증법적이란 말은 변증법이 세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유기적 설명의 틀이자 논리적 구조이며 동시에 개인의 인식의 상승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용한 말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삼단구조는 초기소설의 가장 뛰어난 작품 거의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우선 명혼소설과 몽유소설에 해당하는 모두가 이것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나말여초의 격동기에 탄생한 <조신>에서의 변증법적 삼단 구조는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형성되었으며 후대에는 어떻게 변모해 갔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를 위해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이 작품에 대한 일연의 평가이다. 일연은 이 작품을 당대 전기인 <침중기>에 비교하면서 찬에서 ‘모름지기 가장 밥 익기를 기다리는 짓일랑 하지 말지니 수고로운 인생이 꿈 한바탕 사이임을 깨닫는다네(不須更待黃梁熟 方悟勞生一夢間)’라고 하고 있다.

한데 <침중기>는 몽중 세계가 사대부가 겪는 벼슬길의 영고성쇠를 그리면서 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구운몽>과 비슷하며 <조신>과는 다르다. 그러나 세계를 염세적으로 파악한 점, 계기적으로 다른 세계로 넘나드는 작품 구조를 가진 점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연이 동일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¹⁸⁾

<침중기>나 <남가태수전>은 당나라 초의 작품이다.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구멍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구성은 <도화원기> 등 육조 지괴의 몇 작품에서 나오고 있다.¹⁹⁾ 이것은 이러한 구성이 타세계

18) 이렇게 작품의 실상과 일연의 평가가 서로 달라지는 것은 『삼국유사』라는 서물 자체의 특질에서 기인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삼국의 성립 이래 불교가 전래되고 일연 시대에 이르는 천년의 정신적 정화가 모여 있다.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과 그의 문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으며 그들이 기존의 문헌과 구비전승에서 『삼국유사』의 각조목들을 채록한 안목도 또한 거기에 걸맞는 최고의 수준의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삼국유사』에는 천년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각 시대마다 달라진 정신의 궤적과 함께 이에 대한 일연과 그의 문하의 편찬의식이 배어 있으며 한편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전승의 흔적과 이것을 간추린 평가안이 숨어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뒤엉켜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통한국사상 내지 민중의 샤머니즘적 세계와 불교의 습합 양상이나 지배계급의 유교적 세계관과 불교의 융합이 잘 나타나 있다. <조신>의 작품이 지향하고 있는 근본 내용과 일연의 찬이 서로 달라진 것은 『삼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복합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 程毅中編, 『神怪情俠의藝術世界』,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24면에 <도

로 접촉하는 서사구조, 특히 타세계로 여행하는 구조에서 발생하여 신선세계를 동경하는 내용에까지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데 전기와 달리 이들 작품에는 구멍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구성은 같으나 마지막 순간에 상승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도화원기>의 어부는 도화원에 갔다와서도 역시 같은 사람이다. 이러한 상승의 과정이 전기에 와서 등장하게 된 것은 그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적으로 말해 이러한 변화는 불교의 깨달음의 과정이 논리적 구조로 성숙된 후에야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괴와 전기 사이에는 남북조의 분열을 극복하고 수당 세계제국으로 나아간 역사적 과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불교는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연다. 남북조 이래 불교와 도교는 같은 발전의 길을 따라 왔다. 따라서 위의 전기에 나타나는 도교적 깨달음의 과정은 바로 불교의 깨달

화원기>와 비슷한 구성을 갖춘 몇 작품에 대해 간략히 그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袁相 根願>에 대해 작품 분석을 행하고 있다. 필자가 찾아본 이런 작품들로는 <穴中仙館>, <韶舞>, <醴陵縣人>, <袁相, 根願> 등이 있다. 이 중 <穴中仙館>을 예로 들자면 어떤 사람이 태산의 깊은 구멍에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오히려 구멍을 따라 들어갔더니 신선들이 사는 도회를 만난다. 거기에서 대접을 받고 안내를 받아 바깥으로 나와보니 촉 땅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장화에게 물어보니 그곳이 바로 선관이었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들은 <도화원기>와는 또다른 사상적 기저를 가지고 있으나 구조는 모두 비슷하다. 또한 이들 작품은 여러 지괴서들에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변개된 모습으로 실려 있어 당시에 상당히 인기있었던 작품들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을 참고 있는 지괴서로는 도연명의 『搜神後記』가 가장 작품의 완성도가 높으며 참고 있는 작품들의 수도 많다.(葉桂剛·王貴元 主編, 『中國古代十代志怪小說 賞析』上·下,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993.에 지괴서들을 모아 실고 있어 이들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원상 근석>에서 산속에서 만난 선녀를 버리고 돌아온 원상과 근석이 여생을 고뇌 속에 보내는 모습은 이들이 그 경험을 통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그 지표는 <침중기>에서 보이는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음의 과정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승의 과정'을 갖지 않는 타세계로의 여행구조는 불교 이후 주인공의 내적 상승의 과정을 작품 내부에 갖게 된다. 이러한 상승의 과정은 특히 선종계열에 속하는 사상가들에 의해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깨달음을 획득하는가 혹은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탐구되어 왔는데 이를테면 동진시대 축도생은 '단박 깨달음(頓悟)'의 개념으로 이러한 계기적 발전 구조를 가진 깨달음의 구조를 완성시키고 있다.²⁰⁾

한편 이것은 불교의 사유구조가 가지는 특성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불교의 사유구조는 돈오의 단계를 중시하는데 특히 이 돈의 단계에서 깨달았다는 것만 말하지 어떻게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상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한번 깨달으면 깨닫기 이전의 단계는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부정해 버린다. 그러나 불교에서 깨달음은 그 깨달는 순간, 상승하는 바로 그 단계에 모순된 세계에 대한 부정과 해결의 힘을 함축

20) 그는 불리를 깊이 체득한 견해를 '오(悟)라고 부르고 경전으로 학습하고 보고 들은 불교지식을 '신(信)이라고 불렀다. 후자는 전자를 위한 재료의 성질을 갖는다. 그의 사상적 특질은 바로 그가 '돈오(頓悟)를 주장했다는 데 있다. 그에 이르러 비로소 깨달음은 여러 겹의 업을 거쳐 점차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단박에 불성을 체득할 수 있는 길로 인식되게 되었다. 方立天, 『中國古代知行觀』, 『中國古代哲學問題發展史』, 中華書局. 한편 재미있는 발상으로 '조신(調信)이라는 이름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삼조(三調)를 가리키는 조식(調息), 조신(調身), 조심(調心)에서 보듯이 '조(調)'라는 글자는 끊임없는 일상적인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조신(調信)이라는 이름은 축도생이 제시한 개념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信)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탐구를 가리키는 용어일 수도 있다. '조신'이라는 이름이 범명이라면 이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위에서 소개한 축도생의 이론과는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불교 유파의 특정한 교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신(信)이 사용되었거나 나말여초 불교계에서 '신(信)의 문제가 불교적으로 문제로 등장했다면 <조신>이 담고 서있는 불교 유파와 그 문제의식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고 있다. 이것이 수당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격변기의 사회 구조가 논리적으로 수용되어 <침중기>나 <남가태수전>에 나타나는 문학적 구조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당나라 때에 천태 지관은 깨달음을 삼단계로 나누고 있는데²¹⁾ 이것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늘어놓으면 변증법적 삼단구조와 유사하다. 깨달음의 논리적 구조와 문학적 구조가 동일한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조신>도 이와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발전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조신>이 성립될 당시에는 중국에서 이미 최고도로 발달되어 있던 불교의 제 유파가 한국에 전래되어 있었다. 실제로 천태지관은 원효에 의해 수용되어 자신에 맞는 논리적 구조로 재창조되었다.²²⁾ 한편 앞서 말한 <침중기> 등 변증법적 삼단구조를 취하고 있는 전기들도 이미 전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새롭게 개창했다는 의미보다 이러한 구조들이 어떻게 당시 한국사회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는가, 다시 말하면 불교의 제 유파 중 어떤 것이 각 시대에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한국의 민족적 형식으로 재창출되었는가, 중국 전기에서 변증법적 삼단구조와 한국에서 그것의 서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조신>에서 지향하는 깨달음의 성격이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깨달음을 열려는 인간이 현실에서 수행하는 구조이자 동시에 논리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라는 성격이 현실을 전형화시켜 낼 수 있게 했고 동시에 불교라는 테두

21) 천태지되는 삼종지관을 남악혜사가 전한 것이라고 스승에게 그 공을 돌리면서, 세 가지 지관을 설명했다. 처음과 끝이 차이가 나는 것(漸次), 서로 갈마드는 것(不定), 서로 다른 둘이 아니라는 것(圓頓止觀)의 세 지관을 설정한 것이다. 추만호, 『나말여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3. 33면.

22) 추만호, 『나말여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3. 33면.

리를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인간의 정신이 발전함에 따라 유교와 섞이기도 하고 문학적 구조로 정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출세간을 지향하는 종교이다. 따라서 그 논리구조 내부에 현실을 꿈으로 보는 경향을 이미 갖고 있다. 따라서 몽유구조라는 변증법적 삼단구조가 불교의 영향 아래에서 탄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데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불교에서의 깨달음이 단순히 신비적 종교체험이거나 현실을 도외시하고 탈속하려는 경향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른 삶의 길’이며 ‘세계의 실상에 대한 자각’이다.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깨달음의 뒤에도 어쨌든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개인의 물들고 단혀진 삶을 단박에 지양하나 동시에 이러한 지양은 다시 중생구제를 위한 보현행원으로 전환되며 동시에 끊임없는 보현행이 된다.²³⁾ 이것은 깨달음이 세계에 대한 전면적 인식의 획득의 길이라는 점에서 깨달음 다음에 또다시 수행과 실천의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보현행원이 어차피 중생을 향한 것이라면 중생이 과연 현실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깨달음의 내용과 방법도 또한 달라지게 된다.

<조신> 이전에 <육면비염불서승(旭面婢念佛西昇)>, <광덕 엄장>, <백월산이성성도기(노힐부득, 달달박박)>, <사복불언> 등의 작품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한 상승의 단계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서는 현실에서 곧바로 성불이라는 두 단계의 과정으로 상승이 나타나며 상승 후에는 곧바로 서천으로 향해 감으로써, 현실로 다시 돌아온 <조

23) 법성, 「깨달음의 일상성과 혁명성」, 『창작과 비평』 1993년 겨울. 그는 깨달음에 있어서 이러한 보현행원에 대한 강조를 통해 기존의 돈집논쟁이 빠져 있는 개인적인 깨달음에의 지향에서 벗어나 대중을 향한 깨달음을 이론적으로 완성하고 있다.

신>과는 완전히 다르다. 한편 <자장정율(慈藏定律)>에서는 자장이라는 고승이 여러번에 걸쳐 문수보살 등을 만나 정각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신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 작품과 <조신>이 불교적 유파를 달리 하고 있으며 생성과 전승의 장 또한 다른 데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백월산이성성도기>은 미타와 미륵 정도 중 미륵의 우위에서 관음신앙과의 연계가 두드러지며 수행과 해탈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이다. 이에 따라 이 작품에서 성불은 깨달음과 득도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이었던 사람의 성취의 강조라는 민담적 성격을 좀더 강하게 갖는다. 반면 똑같은 전승이면서도 변이형으로 보이는 <광덕 엄장>은 고독한 수행자의 모습이 좀 더 두드러진다. <사복불언>은 원효 계열의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불교의 전통이 한층 강한 작품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들은 신라 중대에 사회가 변혁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현세에서 곧바로 놓여남을 꿈꾸는 민중의 원망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망이 현실의 변혁에 대한 절망의 소산이며 한편으로 너무도 쉽게 지배 계층의 이데올로기로 정초지어짐에도 불구하고²⁴⁾ 성불해서 서천으로 가는, 마치 훌쩍 뛰어넘는 듯한 상승의 구조는 현실의 질곡의 깊음과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원망과 그만큼의 절망을 그 상승의 높이에 담아 내고 있다. 한편 그것은 계집종에 불과한 옥면이 실은 관음의 화신 중의 하나였으며 성불을 이룩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성불이 신분에 상관 없으며 부처의 현실 또한 그러하다는 불교의 진보적 인간관을 근저에 깔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해 <조신>은 삼단계의 구성을 취하고 있어 현실을 극복하려

24) 이런 점에서 종교의 외피를 쓴 지배이데올로기는 흔히 현실에서의 민중의 절망을 그 존재기반으로 삼고 있다.

는 움직임이 그만큼 구체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듯이 깨달음 후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실천 지향의 구조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고 또 극복이 눈앞의 현실 과제로 떠오른 시대와 담당층의 소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광덕 업장> 등의 작품에서 곧바로 <조신>의 구조로 이어졌다는 지적은 곤란하다. 대신에 깨달음의 논리적 구조가, 달라진 현실에서 달라진 시대내용을 자신의 내부에 담아내면서 질적 상승을 이룩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이었다고 해석하면 이들이 기반하고 있는 시대 및 종파간의 차이를 무시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구조들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너무 단선적으로 파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성불의 모습은 개인적인 간화선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종의 우위 확립 이후에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고려 건국 이후 화엄종의 남북대립을 북종 중심으로 재편성한 균여가 향가를 통해 표출한 것이 바로 보현시원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조신>에서 나타난 바 실천의 불교를 특별히 강조하고 지향하는 정신세계가 고려초기에 불교의 지배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신>이 화엄종 계열이고 고려 초기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둘 사이에 비록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균여의 이러한 노력은 <조신>의 해석에 있어서 주목된다 하겠다.

이상으로 변증법적 삼단구조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초기소설이 왜 이렇게 정형화된 구조를 갖는 것에 열중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은 아직 없었다. 이에 대해 불교의 깨달음 구조가 나팔여초라는 현실의 변혁 과정을 그 내부에 담아내면서 순차적 계기적 이행을 하게 된 이래 이 구조가 단순히 불교의 문

제를 뛰어넘어 현실을 담아내는 논리적 구조의 발전 과정 중의 하나로 정착되어 다른 작품들의 구조로도 기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그것의 생성에 일정한 가설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신유학이 불교에 대항하면서도 그 논리적, 철학적 세계인식을 계승한 측면이 강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러한 작품 구조는 유교가 불교를 대체하여 지배이데올로기로 정착한 후에도 몽유록이나 환몽소설이나 전기소설에 채용되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신>에서 변증법적 삼단구조가 갖고 있는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동시대에 형성되었고 동일하게 변증법적 삼단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 작품으로 잘 알려진 <최치원>이 있다. <최치원>은 <조신>이 변증법적 삼단구조 중 몽유구조를 전형적으로 완성한 최초의 작품임에 비해 명혼구조를 최초로 완성하고 있다. 물론 <최치원>의 경우 중국의 지괴나 전기의 영향이 더 두드러진다. 이 두 작품은 여러가지로 서로 대비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두 작품이 불교사회에서 나타난 몽유구조와 명혼구조가 가지는 특성을 각각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조신>은 현실세계의 객관적 탐색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표출하려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 <최치원>은 세계와 갈등을 겪는 문인지식인의 내면을 귀신과의 만남을 통해 표출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최치원>에서 명혼세계는 문인지식인이 현실에서 겪는 갈등의 양상을 명혼 과정으로 용해시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우의적 성격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작품의 상승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제까지 논의해 왔듯이 <조신>에서는 깨달음 이후 실천의 단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분명한 문제의식의 상승이 있다. 이에 비해 <최치원>에

서는 최치원이 두 여인과 만남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좀더 강력한 자각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시를 통해 표현되며 그 실천 행위는 임천(林泉)으로의 퇴거이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최치원의 문제 의식이 현실 어느 곳에서도 충족될 수 없으며 귀신과의 만남을 통한 충족도 결국 하룻밤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충족불가능성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둘째 단계인 몽유와 명혼 세계의 성격과 이에 의해서 규정되는 상승의 단계도 다르다. <조신>에서 몽유세계는 조신이 현실에서 처해보지 못했던 또다른 현실세계이며 이에 따라 그것은 또다른 나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고난이며 때문에 현실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고난이다. 이에 따라 <조신>에서 상승은 결정적인 비약으로 나타나며 세번째 단계에서 실천의 의미가 작품 전체 의미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최치원이 명혼세계에서 겪은 일들은 평소 그가 소망하던 두 가지-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의 만남, 동시에 자신과 동질적인 경험을 소유한 사람과의 만남이다. 명혼세계에서 이미 소망이 충족되기 때문에 <최치원>에서는 상승의 단계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뒤따라 오는 실천의 의미도 미약해 보인다.

대신에 명혼세계 자체가 최치원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독립적인 세계를 지향하려는 모습이 강한데 그 세계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은 여러 방향에서 논의되어야겠지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미적공간, 내면적 공간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최치원>에서 최치원이 두 여인과 만나는 공간은 달이 밝은데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욕구로 인해 좌절을 겪는 남녀들이 만나 시를 주고받는 공간이다. 이때 밝은 달이라는 현실공간과 남녀들의 비극적인 정조가 어우러져 서로 간섭하면서 한쪽으로서의 몰입을 막으면서 독특한 비극적 공간을 창출한다. 이때 이 독특한

비극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치원이 여인들과 주고받는 시이며 이 시들의 내용과 이 공간의 모습은 바로 최치원과 두 여인의 내면 풍경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최치원>에서 상승의 단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최치원>에서 상승의 단계가 문면에서 두드러지지 않아 보이는 것은 <조신>과는 다른 작품 읽기 방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신>에서 독자는 절대로 조신이라는 한 개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조신과 그의 아내는 완전히 독자와는 독립적인 세계에 속하는 개인이며 따라서 이 개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세계를 형성해나가고 문제의식을 부여하고 풀어나가는지에 독자의 시선은 집중된다. 이에 비해 <최치원>에서 독자는 처음부터 최치원과 자신의 내면을 합치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독자는 최치원이라는 개인이 느끼고 행동하는 바를 자신의 것으로 대치해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셋째 단계로 넘어가는 상승의 단계는 둘째 단계에서 설정된 만남이 끝나고 다시 현실이 시작되는 데서 오는 두 세계 사이의 불일치를 주인공과 독자가 같이 느끼는 데서 온다. 이때 주인공의 세계와의 부조화와 내면 풍경은 주인공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독자와 합치된 집단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상승에서 오는 문제 해결의 방향은 둘째 단계의 세계가 미적 공간이자 내면적 공간을 지향하듯 내면적 주관적 개인적 해결 방식을 지향한다. 이에 반해 <조신>은 작중 세계는 주인공만의 것이나 문제해결방식은 사회적 집단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최치원>의 방식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다.

결국 나팔여초 확립된 초기소설에서 변증법적 삼단구조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갈래의 구조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것들이 위에서 보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결국 초기소설사에서 변증

법적 삼단구조가 지향해왔던 현실이 다른 세계와 접촉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변증법적 삼단구조는 보통 둘째 단계에서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설정하고 주인공으로 하여금 그 세계와 접촉하게 하는데 이때 주인공은 그것이 충족의 방향이든 좌절의 방향이든 자신이 속해있던 세계와 너무도 다른 세계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다. 따라서 변증법적 삼단구조의 상승의 단계가 그렇게 두드러질 수 있고 짧은 서사체에 세계 전체의 인식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완전히 이질적인 두 세계가 서로를 비추면서 특히 현실의 모순점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치원>이 둘째 단계에서 충족의 세계로, <조신>이 좌절의 단계로 나아감에 따라 작품 자체의 구성 원리가 달라졌던 것이다.²⁵⁾

25)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신재홍이 이것을 의사용유구조라고 하면서 이계여행 모티프라고 설정한 것이다.(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개명문화사, 1994.)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전통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극히 타당한 것이다. 고대나 중세 초기에 실제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국적인 풍물만을 의미하지 않고 적대적인 자연과 인간 집단 속에 개인이 내던져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괴류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여행도중 이물(異物)을 만나 퇴치하거나 피해를 입은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것이다. 『산해경』 속에 나오는 이물·괴수들의 형상도 비록 이들이 해당 지역의 토테미즘의 대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지역적 적대성을 갖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계여행이 특정한 시기에 앞서 예로든 구멍 체험이 있는 지괴류로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한국에서 서사체의 전통도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여기서 간단히 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는 서사체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마도 한국에서 타세계로의 여행이 서사체의 발달에 있어 갖는 의미는 일찍이 쇠퇴하고 대신에 타세계와의 접촉이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한다. 그것은 <원광서학>이나 <김현감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세계가 우연히 접촉함으로써 해서 나타나는 효과에 더 중점을 두어 탐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점은 아마도 <원광서학>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불교와 기존 정신세계가 서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어쨌든 <조신>이나 <최치원>의 단계에 오면 이제 이계여행 모티프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없는 단계로서 두 세계의 접촉에 대한

그러나 문제는 그 후 변증법적 삼단구조의 발전과정에서 과연 어떤 구조가 주요한 것으로 대두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두가지는 서로 섞이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전기소설에서 몽유록에 이르기까지 <최치원>이 가진 성격이 우세한 것으로 떠오르지 않는가 한다. 결국 이점 때문에 이제까지 초기소설사 연구가 <최치원> 중심으로 되어 오고 있기도 하다. 일견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조신>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성격들은 이후의 변증법적 삼단구조에서 계승되지 않고 있음에 비해 <최치원>에서 보이는 문인지식인이 쓰임을 얻지 못해 고뇌하는 모습은 『금오신화』나 <원생몽유록> 등에서 여러모로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 중세사회에서 나말여초 이래 지배계급의 장기적인 안정과 그에 기반한 문인지식인의 안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나말여초 때에는 <조신>이나 <김현감호>가 더 지배적이고 광범한 정신적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이른바 뛰어난 문인지식인의 세계내적 존재에 대한 탐구라는 <최치원>의 좁은 문제의식은 최상층부의 문인지식인들에 의해서만 공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칠 줄 모르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세계와의 갈등으로 파악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유교적 전통의 문인지식인의 계속적인 양산은 <최치원>의 문제의식을 초기소설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조신>의 문제의식은 변혁기 시대가 지나가고 불교의 변천과 유교사회로의 이행 등으로 인해 잊혀져 버린다. 이에 따라 나말여초에 두 방향으로 성립된 변증법적 삼단구조도 그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형을 겪게 되는데 특히 15세기에서 17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변증법적 삼단구조는 『금오신화』..

해석이 철학적, 논리적으로 발전해 버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럴 때 여행이나 집축이라는 식의 모티프적 접근을 넘어선 변증법적 삼단구조라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기재기이』 등의 전기소설집이나 몽유록이라는 서사 양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때의 모습이 과연 어떤 작품 세계와 문제의식, 형상화 방법을 수반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 과제로 남기거니와 처음에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탐색과 맥을 같이 하여 시작된 변증법적 삼단구조는 불교와 대항하며 혹은 불교를 흡수하며 자신의 모습을 정립한 신유학의 체계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물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도식이었으며 이것이 15-17세기 소설 발달에서 변증법적 삼단구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기본성격이 아닌가 한다.

5. 도시²⁶⁾의 발달과 <조신>의 작자층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과연 <조신>의 작자층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조신>의 내용을 이루는 애정이나 유민의 문제가 나말여초 명주지역의 민중지식인의 동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조신>이라는 작품을 현재의 모습으로 창작한 작자층 역시 명주지역의 지식인들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작품은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서울로 돌아가 장사의 직책을 벗어버리고 사재를 털어서 정토사를 창건하여 모

26) 이 시기의 것을 과연 도시라고 이름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임형택은 이미 성시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서 후대 도시들과의 연속선상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또 나말여초 당시 이미 성숙할대로 성숙해버린 봉건국가와 그 중심부인 도시를 폄하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성시 대신 도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한다. 물론 필자는 한국 봉건사회에서 도시 발달의 정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며 따라서 이러한 용어는 잠정적이다.

든 업을 삼가 닦다가 마지막엔 간 곳을 몰랐다(還京師, 免莊任, 傾私財, 創淨土寺. 懃修白業, 後莫知所終)’라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조신>이라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위치는 바로 서울(京師)인 경주이다. 다시 말해 <조신>은 정토사를 짓고 온갖 좋은 일을 다하다 마지막엔 간 곳을 모르는 조신이라는 스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 이야기인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선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에서 의상·원효와 범일의 이야기가 분명히 낙산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승되었음을 보여주는데 비해 <조신>은 경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일단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조신>은 경주라는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중 불교를 지향하면서 대중과 함께 하려 했던 여러 고승들, 예컨대 『삼국유사』에서 혜공, 사복, 원효 등의 맥을 잇는 인물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도시인들에 의해 이들이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형상화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혜공, 사복, 육면비 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비범하며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서방정토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며 원효도 어쨌든 범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²⁷⁾ 인물이다. 이에 비해 조신은 도시의 한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도시인들²⁸⁾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을 인물이다. 그는 애육에 빠져 주체하지 못하며, 고난에 좌절하고 지탱하지 못한다. 깨달음 후에도 그 지표로 흰 머리를 가진 것 외에는 아무런 특별한 능력없이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대중 속에 자신의 자리를 잡고 있다. 조신이 이렇게 평범한 인간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 육면비나 사복의 모습에서 보듯 하층민의 구원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불교에 대해 하층민이 적극적으로 지

27) 그가 귀족 출신이며 요석공주의 남편임을 상기하라.

28) 이때의 도시인은 귀족과 구별되는, 그러면서 도시의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지했던, 불교가 발전해온 역사적 과정에서 평범한 인간에 대한 불교 자체의 집중적인 탐구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인들이 조신을 생각하는 모습은 원효나 혜공과 같은 대중 포교를 지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짙게 투영되어 있다. 조신 자신이 깨달음 후 대중을 향해 나아간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조신은 원효나 혜공과 같이 뛰어난 고승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대중 포교가 그간 성숙해 온 정도와 함께 나팔여초라는 격변기를 거치면서, 또 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상업적 성격 아래서 도시인들이 갖게된 현실적 인간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인들의 현실적 인간관이 빚어낸 작품으로 반드시 불교적 색채로 일원화할 수는 없지만 <김현감호>와 <온달>을 들 수 있다. 이 두 작품 다 주인공이 도시의 한 구성원이었다. 김현은 어느 해 도성에 대낮에 나타난 호랑이를 단신으로 죽이고 벼슬을 받았던 청년, 온달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너무도 가난하고 순박하게 살아가던 평양성의 청년이다. 또한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도시인 자신들 속에서 인생의 성취를 이루어나간 온달이나 김현과 같은 인물은 도시 내부의 현재성이 좀더 강조되는데 비해 조신의 경우에는 현재의 모습보다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 오늘의 모습을 이루었는가 하는 점이 서사의 중점이 된다. 특히 당시의 도시의 구성원이 조신과 같이 출신지역이나 과거경력에 상당히 이질적인 인간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데서 이들에 대한 인간적 탐구가 <조신>과 같은 작품을 산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서사체의 주인공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인물이면서도 그들이 성취했던, 혹은 경험했던 경험의 특수함이다. 도시인은 자신의 구성원 내부에서 이러한 특수한 인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탐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도시인 특유의 독특한 시각이 전제된다. <김현감호>는 작품의 성격 자체가 호랑이족과의 접촉과정에서 나타난 불행한 결과를 표현하고 있고 <온달>에서도 공주를 온달이 여우라고 오해하는 등 초현실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귀신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다는 해석에 너무도 익숙해 있고 두 세계를 넘나드는 인물에게 흔히 신이한 능력을 부여하곤 했던 당시인들의 세계관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작품에 주인공의 이러한 현실적 성격은 일단 인간관 자체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소수의 귀족에 집중된 경제적 부에 따른 권력의 집중에 따라 혹은 거주하는 집이나 쓰는 물품 등이 다르다는 일상적 느낌에 따라, 귀족과 민 사이의 신분적 차이 뿐만 아니라 일상적 차이가 흔히 관념상에서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인간의 존재의 상정으로 나타나곤 하던 당시 사회로서 볼 때 이러한 인간관을 특이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간관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거나 어쨌든 이러한 인간관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은 도시의 구성원, 혹은 상업적 성격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⁹⁾ 이에 비해 『삼국유사』 탑상류에 나오는 심산의 대찰의 영험에 관한 이야기나 <백월산이성성도기>와 같은 농촌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는 작품들에는 아무래도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가 더 두드러지지 않는가 한다. 일례로 유명한 <거타지>에서 여우를 죽이

29) 고대사회에서 도시와 상업을 중시한 연구로는 조지 톰슨, 조대호 역, 『고대 사회와 최초의 철학자들』, 고려원, 1992. 참조. 일반적으로 고전고대 그리스 로마사회는 노예제라는 생산양식에 기초하여 노예노동을 기본 생산력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고전고대 문명과 철학이 융성할 수 있었다는 논의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톰슨은 똑같은 노예제 하에서도 그러한 문명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당시 지중해 연안 도시의 발전과 이 도시를 부양한 상업과 식민지의 흥성이 이 지역의 문명이 다른 지역보다 한 차원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 보고 있다.

고 용왕 일가를 구한 업적을 이룩한 ‘영웅일 수도 있는’ 거타지는 결국 신분적으로는 그저 평범한 한 궁사로 끝난다. 속단은 힘들지만 일단 이러한 평범한 인간형의 모습에는 상업과 도시의 발달, 그리고 그속에서 형성된 도시인의 세계인식이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제 우리는 다시 임형택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나말여초의 전기소설을 논하는 자리³⁰⁾에서 나말여초 전기소설이 형성된 배경으로 성시의 발달과 그 속에서 피어난 신라의 문화예술 속에서 전기소설이 발아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 ‘발아’가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이 ‘발아’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가설은 가능하다. 우선 귀족과 분명히 구별되는 생활과 의식을 가진 도시인들이 자신들의 구성된 중 특별한 존재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 동시에 자신들에 대한 인식도 표출하는, 설화에서 소설에 이르는 여러가지 서사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신라에서 그것은 <김현감호>나 <조신>, 원효·혜공·양지와 같은 고승들, 옥면비·사복·희명·서동 등의 하층민, 원성왕의 등극 이야기나 검군과 같은 지조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에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그러한 서사체들이 대부분 실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온달>과 같은 작품이나 백제 멸망을 알리는 다양한 전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도시의 발달과 도시인의 서사체의 잔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설화 단계와 소설 단계가 여러가지로 다르듯 아마도 먼저 형성되었을 설화나 실사(實事) 단계에서 소설로 발전하는 데는 반드시 지

30)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연구』 제5집, 한국한문학회, 1981.

식인의 개입이 일어났던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조신>에서 그것은 불교의 깨달음 구조의 문학구조로의 전이와 그 전형적 형태의 완성, 현실적 인간형과 세계인식, 종종 드러나는 문식의 가미를 들 수 있다. 이 중 특히 <조신>에서 문식의 문제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다. 조신의 아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홀로 된 난새가 거울을 봄(隻鸞之有鏡)’과 같은 염사(艷詞)는 늙고 병들어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여인에게 해당되기 곤란한 말이다. 이 대목에서 작자가 형상화한 조신의 아내는 비록 젊은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고는 있지만 그 본질상 젊은 여인의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가 있다. 물론 조신의 아내에 대해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형상화 하는 것은 작품 전체로 보았을 때 그들 부부의 희망과 절망의 대비라는 면에서 훌륭한 미적 성취를 이룩해내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부분은 어쨌든 현실적인 인간관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작품에서 작자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흠으로 지적될 수 있지 않나 한다. 이점은 또한 <최치원>에서 심부름은 시녀를 처음에는 선녀로 알았다가 나중에 시녀라는 것을 알게 되자 희롱하려 하려 한 최치원의 모습에서도 동일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본다.³¹⁾ 이것이 당시 도시의 미발달에 따른 의식의 한계인지, 아니면 변혁기 사회가 이미 지나간 혹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산출된 서사체이기 때문에 작자층의 문제의식의 전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저 실수였는지는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분명히 그 출신이 귀족이었던 아니든 도시인의 세계관을 적극 수용하는 지식인이 존재했었고 이들의 손에 의해서 도시인의 의식을 대변하는 서사체라는, 설화단계에서 소설단계로 나아가는 초기소설사의 발전 도정의 가장 중요한 길들

31) 이점에서 <최치원>이 <선녀홍대>라는 다른 이름으로 전한다는 사실은 여러 모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 하나가 개척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도시인에 의해 애초에 형성되었던 본래의 모습과 지식인에 의한 정착 과정에서 수용과 갈등과 변개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임형택이 말한 ‘발아’의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조신>은 그 모습 중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동시에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이룩했다 하겠다. 한편 앞장에서 논의한 <조신>과 <최치원>이 같은 변증법적 삼단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도 기본적으로 귀족의 정신세계를 나타내었던 <최치원>과 도시인의 모습이 두드러지는 <조신>과의 차이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6. 마무리

처음에 <조신>을 꼼꼼히 읽으면서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문제의식과 작품 구조를 따져보자는 데서 출발했던 이글은 결국 변증법적 삼단구조와 나말여초 도시인의 문학을 상징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물론 이글에서 이야기한 대부분의 것은 시론이나 추정을 벗어나지 못하며 증명과 구체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문학적 구조가 논리적 구조와 비슷한 길을 따라 발전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초기소설사의 정형화된 구조의 지향을 풀어보아야 한다는 점, 사회의 변혁 및 상승의 단계가 인간의 정신세계의 발전에도 관여한다는 점, 농업사회 내부에서 도시의 역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이글에서 <조신>이라는 작품을 놓고 던져보았던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질문들 몇 가지는 설사 이글에서 내려진 몇 가지 결론이 미

좁하고 오류에 가득차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초기소설사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되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한국의 중세 정신사 속에서 불교가 행했던 거대한 역할과 그 세계상의 특수성이 어떤 문학적 세계를 구축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